유희적 저항U

EXHIBITION

2012 / 07 / 03

ART IN CULTURE

2012. 6. 29~7. 25 학고재갤러리(http://hakgo-jae.com/2009/index.html)

예링한 <Last Experimental Flying Object> 비디오 7분 20초 2008

중국 현대미술의 차세대 작가를 소개하는 기획전이 개최된다. 참여 작가는 루쩡위엔 마치우샤 예링한 짱쿤쿤 투홍타오 판지엔 하오량 황징위엔 등 8명으로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기획은 중국 현대미술에 정통한 큐레이터 윤재갑이 맡았다. 전시에 참여한 8명의 작가들은 모두 1970~80년대에 태어나 중국의 격변기에 유년기를 보냈다. 때문에 이들의 작품은 '차이나 아방가르드'로 대표되는 기존 세대의 작가들과 다르게 체제에 대한 추상적인 거대 담론으로부터 자유로운 태도를 보인다. 비록 겉으로 보기엔 진지함이 결여된 듯하나, 그 이면에는 선배 세대 작가들과는 또다른 방식으로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절실하게 풀어간다는 평을 받는다. 예링한은 수채화로 그린 그림과 사진 등을 재구성해 영상을 제작한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될 <Last Experimental Flying Object>는 폐허가 된 공장을 배경으로 고래가 유유히 공간을

가로지르는 초현실적인 공간을 표현한다. 짱쿤쿤은 중국 주택 단지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소재로 한 회화를 선보인다. 그는 정부가 동네마다 설치한 운동기구가 시민에 대한 배려라기보다 권력이 개인의 삶을 육체적으로 길들이는 도구라고 간주한다.

참여 작가 루쩡위엔 마치우샤 예링한 짱쿤쿤 투홍타오 판지엔 하오량 황징위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70
www.hakgojae.com(http://www.hakgojae.com/)
02)720-1524